



보도시점 2026. 10. 11.(일) 11:00
2026. 10. 12.(월) 조간

배포 2026. 10. 8.(목) 16:00

김장철 대비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

- 농관원, 배추·무 등 김장 채소류 주산단지 중심 안전성 집중조사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김철, 이하 ‘농관원’)은 김장철을 앞두고 안전한 김장 채소류 공급을 위해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.

지난해는 배추, 무, 양념 채소류 등 800여 건을 조사하였고,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 13건은 출하 연기,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.

이번 조사는 배추, 무 등 김장 채소가 생산되는 주요 생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.

* 주요 조사 품목: 배추, 무, 파, 생강, 고추, 당근, 갓, 마늘 등

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 연기,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.

아울러 산지의 농업인에게는 농산물별 사용 등록된 농약 및 방제 방법 등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지도를 통해 현장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농관원 김철 원장은 “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	책임자	과 장	방도혁 (054-429-4131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곤 (054-429-4132)